

2022년 지역문화자원 활성화 통합공모 심의평 【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

-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은 총 10건의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심의를 진행하였으며 서류 심의, 보완질문 형식의 인터뷰 심의 등의 단계별 심의과정을 거쳐 최종 5건의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10건의 심의건 중 5건이 축제 및 공연의 사업 유형으로 편중된 점이 아쉬웠습니다.
-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의 심의를 하면서, 지역에서 '공동체'를 만드는 사업이 쉽지 않음을 느꼈습니다. 우리사회가 공동체의 삶보다는 익명의 삶, 개별화의 삶이 주는 편안함에 파편화된 일상을 더 편하게 느끼는구나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번 사업에서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조금 더 친절한 가이드가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으며, 이런 현실이다 보니 심의 과정에서 주요한 판단기준은 '문화를 기반으로', '공동체 조성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되었습니다.
- 코로나와 환경위기와 같은 절체절명의 어려운 시대에 지역 공동체가 모여 소통하는 일은 매우 절박합니다. 공동체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란 바로 지역민들의 삶을 이해하는 것을 기반으로 공동체가 어떤 문화적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는 '과정', 질문의 방법을 고유화하는 과정이 그 지역의 문화를 만들어 내는 시초작업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공동체 문화를 활성화해야하는 이유와 가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으나 이것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어느 지역에서나 할 수 있는 체험들을 나열한 기획이 많았습니다.
- 몇몇 제안 외 대체적으로 문화예술 활동과 연계성이 부재한 제안들이 많아 아쉬웠습니다. 단순히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일회성 공연이나 체험·교육형 제안에 그쳐, 지역주민 간 공동의 관심사를 촉발하기엔 어려움이 있어 보였습니다.
- 선정된 단체 중 공동체가 자리한 고유한 지형과 문화적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공동체 놀이와 활동으로 연결한 부분이 흥미로웠으며, 향후 지역 내 고유한 문화자원으로 발돋움 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한편, 신도시화된 지역의 경우에는 고유의 로컬문화를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보입니다.
- 선정되지 않은 지원자/단체에는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선정된 단체에는 사업들이 지역의 몇몇 분이 주도하는 사업이 되지 않기를, 지역분들이 행사의 대상이 되지 않고 주체가 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2. 3. 22.

심의위원장 지영관 (공연기획자)
심의위원 김현주 (아티스트 커뮤니티 클리나멘 공동대표)
심의위원 신동호 (군포문화재단 공연기획팀장)
심의위원 이미화 (이모저모도모소 대표작가)